

Interview

최종환 파주시장에게 듣는다



경기도 파주시는 남과 북의 연결 고리로 4·27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판문점과 도라전망대, 임진각 등 안보 관광지가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통일경제특구가 파주에 조성되면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관계의 부침과 같은 어떤 정세 변화에도 항구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되면 파주는 남북교류 협력의 장소이자 평화 도시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며 "파주에 LG디스플레이가 들어오고, 운정신도시가 조성됐듯이 통일경제특구는 또 다른 변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주는 한반도 평화의 가교 구실을 하는 지역"이라며 "안보 관광 자원, 수려한 생태환경,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Q 취임 후 남북평화협력 TF팀을 신설했는데.

통일경제특구 준비 등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유기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며 평화협력과도 신설했습니다.

파주와 가장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긴밀한 개성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통일경제특구 조성도 중요합니다.

파주는 개성공단 운영을 뒷받침해오면서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통일대교 등 육로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경제특구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다른 도시들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겠지만, 파주가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Q 운정신도시 안정화 정책에 대해.

우선 버스 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노선 정상화를 위해 광역급행버스(M버스) 재정 지원, 이층 버스 확대운영, 광역버스 준공영제 참여 등에 힘써왔고, 경기도 최하위였던 운행 횟수 준수율이 70%에서 83%로 높아졌습니다.



GTX-A노선 착공이 급물살을 탔고 경의·중앙선 급행열차 증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 안정화를 위한 전반적인 행정 초점을 교통 개선에 맞췄습니다.

Q 파주시 인구가 운정지구에 몰려 있어 도시와 농촌의 균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다 보니 전통 사회와 산업 사회, 대기업과 중소기업, 마을과 신도시 등 다양한 가치가 공존합니다.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다수가 농촌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개발할 공간이 많고, 특히 과거 미군이 주둔했던 반한 공여 구역이 있습니다.

정부가 수립 중인 접경지역 종합발전 계획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시골 읍면 사무소 소재지를 지역생활권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해 농촌에 생기가 돌도록 하겠습니다.

Q 지역 균형 발전 계획에 대해.

운정신도시 3지구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기반 조성 공사의 단계별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낙후된 구도심인 금촌2지구와 울목지구, 문산 3리 지구의 재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물리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은 기반 시설 매입에 이어 6070 창작문화거리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원을 4개 마을에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을 조성해 지역주민 소득을 늘리고 법원읍 시가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통일촌에 마을 단위 소형 LPG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가스보일러를 추가 교체할 방침입니다.

Q 지역에 산재한 관광 자원은 어떻게 활용하나.

임진각 관광지 주변의 평화 권역, 파주출판도시와 헤이리 예술마을의 문화권역, 평화 누리길, 울곡수목원 등 생태권역, 이이 유적지와 파주삼릉 등의 역사 권역별 관광 테마를 발굴하겠습니다.

임진나루와 거북선 훈련장 복원 사업 추진, 해음원지 방문자 센터 건립, 화석정과 울곡 생가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용역 등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대형 복합문화 공연장과 전시장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관광지를 삼릉과 연계해 수도권의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특히 DMZ 관광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 관광센터가 준공되면 면세점 유치와 임진각 평화 곤돌라 설치, 판문점 JSA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DMZ 관광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감악산 출렁다리와 운계폭포, 운계전망대 구간에 야간 경관 조명도 설치하고 마장 호수 흔들다리를 유료화해 관광수입을 늘리고 운용의 효율성도 높일 방침입니다. ●



파주

한반도 평화수도

‘분열과 대립’의 낡은 과거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를 열어
 번영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파주시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와 약속입니다.

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



율곡 이이 유적



판문점



GTX



용미리 마애이불 입상



입진각



마장호수



운정호수공원



파주출판도시



LG디스플레이